

광주 2세 이하 영아 민간보육시설 위탁 급증 지자체 “보조금 바닥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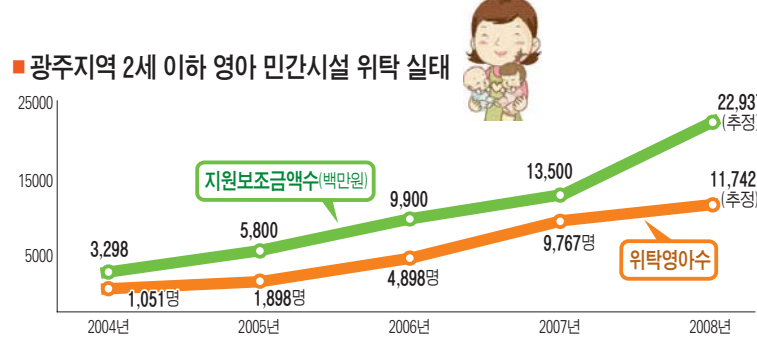
예산 확보 골머리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수요가 최근 수년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에 교사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영아기보조금 예산이 보육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매년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조부나 친인척에게 의존해왔던 영아 보육 수요가 체계적 양육이 가능한 민간시설로 대거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 시내 886개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지는 0~2세 영아는 1만1천742명으로 지난 2004년의 1천511명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다. 민간시설에서 보육하는 영아는 2005년 1천898명, 2006년 4천898명, 2007년 9천767명 등으로 해마다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교사 인건비로 지원되는 영아기보조금 예산도 지난 2004년 32억9천800만원에서 올해는 229억3천700만원(추정)으로 크게 늘었다. 보조금 예산은 2005년 58억여원, 2006년 99억여원, 2007년



135억여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당초 올해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189억7천500만원에 그쳐 46억원을 국비와 연말 추경 예산에서 추가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이 보조금은 국비 60%, 지방비 40% (시비 28%+구비 12%) 비율로 분담한다.

하지만 국비나 추경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보조금이 바닥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적으로 보조금 지원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예비비 편성을 위한 추가 소요액 파악에 나섰다.

영아기보조금은 부모들의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영아전담보육시설에 지원하던 것을 지난 2005년부터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영아의 경

우 1인당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시설들이 보육을 기피해왔다.

시 관계자는 “올들어 영아기보조금 지원단가가 0세반(반당 지원액 3명)은 16.4%, 2세반(반당 7명)은 26.7% 인상되면서 지원 아동수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부나 친인척들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아이를 맡으려 하지 않고 부모들도 부담스러워 민간보육시설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민간 시설의 영아보육서비스 수준과 이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가 향상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오는 26일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앞둔 전남대 학생회관에 중국 유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중국어 대자보가 걸려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대 총학 선거, 중국어 대자보 걸렸네

외국인 유학생 1천명 참여 독려 차원

광주·전남지역 대학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둔 전남대가 중국 유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구내에 부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41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국어로 작성된 대자보 10여개를 교내 곳곳에 부착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자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 유학생 도움을 받아 ‘26일 실시되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아 간소하게 작성돼 기숙사·경영대·인문대 등 교내 곳곳에 설치됐다. 또 전남대 홈페이지 내 자유토론방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게재됐다.

이처럼 중국어로 총학생회장 선거 참여 독려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것은 전체 유권자 1만6천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유학생이기 때문이다. 전남대에 재학 중인 외

국인 유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해 모두 1천명에 육박한다.

전남대 선관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이 부여됐다”며 “외국 유학생들도 대학 구성원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중국어 대자보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제41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정후보 오모(심리학과 4년)씨와 부후보 박모(법학과 4년)씨로 이뤄진 우리학생회 한 팀만 출마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선으로 치러지게 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원침 (7661) 김종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착각 및 상상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점 : 061) 337-0571

취해, 버스서 잠자던 여성에 못된 짓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50대 취객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다 잡혀서 갓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 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B(56·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23일 낮 12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을 지나가던 160번 시외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K(여·24)씨의 몸을 수차례 더듬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K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K씨의 빈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못된 짓을 했는데, 경찰에서 “여성이 굳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

○-B씨는 이상한 감세를 차리고 잠에서 깬 K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종행기자 golee@

“수업전 기도, 종교 차별 해당”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 위반 나주 여교사 첫 시정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 전 기도를 한 나주 모 중학교 여교사의 행위가 종교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남 교육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가 시행된 이후 차별조치로 인정된 경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문광부는 지난달 1일부터 운영하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8건의 종교차별 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신고자가 철회한 1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 최근 자문회의를 열어 수업 전 기도를 한 것이 종교차별에 해당한다며 첫 시정조치를 내렸다. 나주 모 중학교에서 1학년 영어 과

목을 지도하고 있는 이 교사는 그동안 수업전에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교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1분간 기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기도를 중지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한 적은 없고, 교사로서 책무를 잊지 않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정조치에 따라 곧바로 기도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종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신고된 사안 중 정부 요인이 불교 행사인 석가탄신일에 참석하는

행위, 사찰내 납골시설 설치, 특정종교 부지에 피신한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은 행위 등은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우편집중국에서 선선소포 우편물에 부착하는 십자형 국명표가 특정종교를 연상시킨다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문광부는 12월 한달 간 지하철 내 TV방송을 통해 공직자가 종교차별을 할 경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각종 종교차별 사례 등을 편람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조폭 낀 대규모 보험사기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광주서 47명 적발

광주에서 조지폭력배 등 47명이 연루된 대규모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7천300만원을 타낸 광주 모 조지폭력배 조직원 이모(26)씨 등 4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27)씨 등 4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 16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일곡동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737만원을 타내는 등 2005년 1

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금 7천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 조지폭력배 6명이 포함된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으며, 때때로 교통사고 자차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지폭력배가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5·18구속부상자 새 회장

양희승씨 횡령 혐의 기소

회원간 갈등으로 파행을 겪은 5·18구속부상자회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양희승(50)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양씨는 임시총회에서 공금을 과다하게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부상자회의 또 다른 임원 이모(50)씨와 함께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임시총회에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초청해 평소 회의 경비인 300여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3천여만 원을 식사 등 경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3일 임시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침단 3,000명

25화
박현빈

27목28금
김수희

4목5금
설운도

후박 나이트 OPEN **총**
광주침단 · 폭스존옆